조선 후기 관왕묘 향유의 두 양상*

김 지 영**

1. 머리말
2. 17세기 도성의 관왕묘, 강요된 영험처
3. 숙종대 관왕묘의 재발견
4. 영조와 정조, 관왕묘 의례를 통한 조선적 武의 설득
5. 민간의 관왕묘 영험성의 향유와 비판
6. 맺음말

초록: 조선에서 관우를 기념하는 사당[關王廟]이 처음 생긴 것은 임진왜란 때였다. 그러나 거의 100년 동안 관우의 영험함을 빌려 개인적 복을 구하는 사람들만 즐겨찾는 장소였다. 선조가 처음 이 곳을 찾을 때 왕이 무묘에 찾아가는 예를 차용했고, 이후 국가 祀典에 포함되어 제향이 이루어졌지만 그 제향이 갖는 국가적 의미는 불확실했다.

이 장소는 숙종대에서 정조대에 이르는 동안 국가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숙종은 관우를 忠義와 尊周의 아이콘으로 해석해냈다. 당시 왕조의 수복을 위해 노력하며 時勢보다는 정의正義를 중시했던 촉한을 가장 정통성이 있는 나라로 여기는 '촉한정통론'의 역사의식은 『삼국지연의』라는 책을 통해 조선에 더 널리 퍼졌다. 숙종은 관우의 충성심을 군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보편적인 정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재정의했다. 관우는 단지 무력이 뛰어난 무장이 아니라 『춘추』라는 책을 즐겨 읽었던 정의로움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장수였고, 시대를 뛰어넘어 기억할 만한 '武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영조와 정조는 관왕묘를 조선의 무묘로 정립시켰다. 숙종과 마찬가지로 관우를 형세에 굴하지 않고 오롯이 漢 왕조의 회복을 위해 몸바친 이로, 춘추 의리의 상징으로 기념했다. 무묘에서 절하는 무장들과 군사들에게 관우를 본받아 무력이 사적 이익과 權勢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보전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숙종~정조에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13).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www.kci.go.kr

이르는 시기는 군사 방면의 업적이 조선의 어느 시기보다도 두드러진 시기였다. 왕조는 의리에 바탕한 무의 상징으로 관우를 재정립시키며 그의 사당에서 조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무'를 설득했다. 내부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정치로 관왕묘에서의 설득에 설득력을 더하는 일은 왕조의 몫이었다. 19세기 역사 속에서 관왕묘 의례는 지속되었지만, 관왕묘의 18세기적 상징성은 점차 희미해졌다. 관왕묘는 다시 사적인 무당집으로 변해갔고, 끝내는 국가가 스스로 관왕묘를 왕실의 안녕을 위해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관왕묘는 더 이상 국가의 안위와 무관한 공간으로 전락했다.

핵심어 : 관왕묘, 삼국지연의, 무묘, 春秋義理, 대의에 바탕한 忠, 大明義理

1. 머리말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당시 조선 군사제도의 여러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軍志』라는 책을 전거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魏나라와 秦나라의 정예한 무비로는 桓·文의 節制를 당해낼 수가 없고 환·문의 절제는 湯·武의 仁義를 대적할 수가 없다." 人和를 얻는 정치와 군사제도 개혁이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1] 정조가 인용한 구절은 조선시대 많은 군대 경장론을 말하는 이들이 인용하는 글귀이기도 했다.

이 구절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빠짐없이 읽었던『通鑑綱目』이라는 책에 荀子가 조나라 孝成王 앞에서 병법의 요체를 설명한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2] 순자는 군사가 강한 나라로 널리 알려졌고, 실제 열국이 경쟁하며 다투는 치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던 위나라, 진나라, 제나라의 제도를 비판적으로 거론하며 좋은 군대상을 제시했다.

우선 순자가 본 제나라의 군대는 돈으로 산 군대였다. 제나라 사람들은 적의 머리를 벤 사람에게 8냥의 금을 내려 보상해주었을 뿐이다. 작은 전투에서는 통하겠

1)『정조실록』권49, 22년 10월 19일 기유.

2)『通鑑綱目』卷2上 "楚以荀況爲蘭陵令"

www.kci.go.kr

지만 전투가 크고 적이 견고하면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니,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군대이고 시장의 날품팔이를 고용해서 싸우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진단했다.

위나라 군대는 실력에 의해 엄격하게 선발되고, 면세와 농지 및 택지를 지급해서 우대하는 군대이다. 위나라 병사는 3배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12석짜리 쇠뇌를 들고, 50개의 화살을 등에 매고, 창을 잡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찬 채 3일치 식량을 가지고 하루에 백리를 달려가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이런 엄청난 기초 전투력을 가진 병사에게 免稅와 토지지급 혜택을 주고, 실력이 예전 같이 못해도 한번 준 혜택을 빼앗지 못하니, 일시적으로는 좋은 군대가 되지만 길게 보아서는 나라를 위태롭게 할 군대였다.

진나라는 척박한 땅에서 혹독하게 백성을 부리며, 보통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戰功 외에는 없었다. 전공에 대한 후한 보상을 통해 서로를 분발하게 해서, 다섯 갑사의 머리를 베면 다섯 집을 부릴 수 있게 하여 군대를 강하고 오래도록 유지시킬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보상을 바라고 이익을 추구하는 군대일 뿐이 제도를 편안히 여기고 절의 즉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군대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순자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 제나라의 전투기술로 위나라의 병졸을 대적할 수 없으며, 위나라의 병졸로는 진나라의 정예병을 대적할 수 없으며, 진나라의 정예병으로는 제 환공과 진 문공의 절제된 군대를 대적할 수 없으며, 환공과 문공의 절제된 군대로는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仁義를 바탕으로 한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순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제 역사에서 구현하지는 못했고, 가까운 역사에서는 진나라의 강한 군대가 승리했다. 허나 진나라의 강한 군대는 통일 제국 진이 오래갈 수 있게 하지 못했고, 이후 많은 왕조들은 탕왕과 무왕의 인의에 바탕한 군대를 꿈꾸며 시대에 맞는 중용의 제도를 추구했다.

조선 후기 숙종은 도성 문 밖에 설립되어 있던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 직접 행

www.kci.go.kr

차해서 예를 올렸고, 영조와 정조는 도성 안팎으로의 행차 때 관왕묘에서 재배례를 올려 실질적으로 '武廟'의 역할을 하게 했다. 공자 이래 중국과 조선의 대표적 지식인들을 제사지내는 '文廟'는 조선의 제도와 문화가 기반해야 할 가치를 세상에 깨우치고 실천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장소였다. 관왕묘가 '무묘'이길 바랬다는 것은 관우가 조선의 군대와 군사적 힘이 가장 중시해야 할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어야 했다는 의미이다.

기왕에 관왕묘에 관한 연구들은 중앙 및 각 지방에 건립되었던 관왕묘 연혁을 살핀 연구,[3] 무묘로서의 관왕묘 의례에 주목한 연구,[4] 민간의 관우설화에 대한 연구[5] 등이 있다. 또 최근에는 조선후기의 역사적 맥락에서 관왕묘 의례가 가진 정치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준 명에 대한 기억의 장소 즉 대명의리의 상징장소로서 관왕묘에 주목한 연구,[6] 조선후기 숙종대 노론, 소론, 남인의 붕당간 대립으로 인해 왕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관우의 충의와 정절을 모든 신료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충의를 고취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며 왕실을 보위하려고 한 것, '재조지은'과 관련된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성격의 제향이었음을 강조한 연구 등이다.[7]

선행 연구에서 관왕묘 건립 이후 관왕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대부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논고가 필요하다고 여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필자는 관왕묘가 '무묘'가 되었던 이유에 대한 기왕의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무묘였음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관우의 '충'을 강조함으로써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독려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고 본다. 忠은 조선에서 매우 강조해 온 덕목이

3) 김용국, 1965「관왕묘건치고」,『향토서울』25.

4) 심승구, 2003「조선후기 무묘의 창건과 향사의 정치적 의미__관왕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집문당; 2012,「관왕묘 의례의 재현과 공연예술화 방안」,『공연문화연구』24.

5) 김필례, 1998「관우설화연구」,『한성어문학』17, 1998.

6) 이성형, 2014「대명의리론의 추이와 조선 관왕묘-선조~숙종년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53.

7) 한종수, 2015「조선후기 숙종대 관왕묘 치제의 성격 ,『역사민속학』21.

www.kci.go.kr

지만, 권력에 영합하거나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충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왔다.[8]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헌신하는 덕목으로서의 충이어야 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왕에 대한 직간, 도끼를 짊어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왕의 잘못을 제어할 수 있는 용기와 말로 진정한 충으로 강조하며 이를 격려하는 문화였다는 점이 고려된다면 무묘에서 강조하려는 '충' 역시 군신간·군민간의 상하관계를 합리화하려는 것, 왕조의 신민을 순치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再造之恩·大明義理와 관련된 해석의 문제이다. 관왕묘가 건립된 것이 명군에 의한 것이었고 관왕묘에 명군의 기억과 연관된 여러 상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재조지은이라 부르든 대명의리라 부르든 '명의 파병이라는 기억의 재현'이 조선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하다. 대보단이 세워지는 숙종대 이래로 대명의리론이 국가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명의리론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계의 해석이 크게 엇갈린다. 정파적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노론 지배층의 과거팔이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명의 재조지은을 강조하면서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리를 국내 정치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질서가 청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국내정치적 득실을 우선해서 과거의 의리에 매달리게 만들었던 18세기 이후의 시기를 역사의 진전을 발목잡은 시대라고 보기도 한다. 관왕묘 의례의 정립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재조지은과 연관된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면 그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관왕묘는 기본적으로 무묘로서 건립되었고 그 '무'라는 수단이 헌신할 가치와 관련되어 '대명의리'가 되새겨지는 공간이었다. 그때의 '대명의리'는 명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이상의 조선 문명의 향방, 조선정치의 근본적 지향과 관련된 중대한 함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한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관왕묘가 임진왜란 때 명의 파병을 기억하게 하는 재조지은-대명의리론을 천명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실질적 무묘였던 관왕묘 의례의 본질적 목표와 관

8) 조선에서는 이를 '내시나 환관의 충', '아녀자의 충'이라는 말로 비하했다.

www.kci.go.kr

련지어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관왕묘가 건립될 당시의 논의, 다시 관왕묘를 국가 의례의 장소로 재조명할 때의 논의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무안왕 관우의 사당이 국가의 무묘로서 상징화되는지, 무묘의 주인으로서 관우의 행적이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설파되는지, 그 정치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한편, 19세기 말 관왕묘는 영험적 신앙에 경도된 국정 운영세력의 근거지로서 잘 알려져 있다. 1870년대 후반 이래로 왕실의 기복적 신앙이 關聖信仰과 연계되며 기왕의 관왕묘 의례의 성격도 변화시켰다.[9] 그러나 관왕묘는 성립단계에서 관왕의 顯聖이라는 신화적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다. 영험성을 배제한 채 조선에서 배워야 할 무인의 표상으로 관우를 정립해가려는 국가의 의지는 나름의 방식으로 관우를 전유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민간의 열망을 압도하지 못했다. 국가적 의례를 통한 설득의 내용들을 나름대로 전유하며 창출된 전혀 다른 관왕묘의 상징성과 그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17세기 도성의 관왕묘, 강요된 영험처

조선 숙종 초 중앙에서 거행한 제사 일정표에는 종묘, 사직, 왕릉, 문묘, 선농, 선잠 등과 함께 관왕묘에서의 제사가 들어가 있다.[10] 2월 경칩일에 남관왕묘와 동관왕묘에서의 제사를 지냈고, 9월 霜降日에도 역시 같은 곳에서 국가 제사가 있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제사가 거행되고 있었지만, 당시 관왕묘 제사가 국가적으로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았다. 본래 중국의 오랜 신앙에서 비롯되었던 관왕묘가 조선 땅에 세워지게 된 것도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으로 와 있던 명나라 장수들의 요

9) 조선후기 비성리학적 관성신앙의 유행과 그 신앙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일권, 2014「조선후기 관성교의 경신수행론 ,『도교문화연구』40 참조.

10) 김지영, 2014「전향사 제례등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국가제례와 일상」,『사학연구』116, 250-253면.

www.kci.go.kr

청에 의한 것이었다. 명나라에서는 관우에 대한 숭배가 국가적으로 확립되어 사계절의 첫날과 일년의 마지막 날, 탄신일에 각각 관원을 보내서 제사를 지냈다.[11]

명나라 장수들은 조선에 출진해 있는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속했다. 단지 국가 제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장들을 보호해주는 신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명나라 장수들은 출정하기 전에 관왕묘에서 모여서 승전을 다짐했다. 회맹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맹세한 글에는 '마음과 힘을 합하고, 남과 북이 서로 화합하여 기필코 왜노를 섬멸하자.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서 함께 죽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12]

이렇게 관왕 앞에서 맹세하는 의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海神에게 몸소 제사를 지낸 후 출정하는 명군의 관습은 조선의 본래 전통과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에서도 출전을 앞두고 종묘, 사직, 산천에 고유제를 올렸고, 纛旗와 馬祖에 대한 제사를 올려 전쟁에 임하는 마음을 다잡고 승전을 기원했다. 관왕묘 제사는 이러한 조선 전통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왕의 생일 제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선조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다. 마땅히 제사지낼 곳에 제사지내지 않고, 아무한테나 제사지내 복을 구하는 것은 조선의 제사전통과 맞지 않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 명분없는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홍문관에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근거 삼을 만한 전거를 찾았지만 꼭 들어맞는 답은 없었다. 결국은 송나라와 명나라에서 제향을 올렸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제향에 참석하고, 두 번 절하고 세 번 술잔을 올리는 의식을 거행했다.[13] 명 유격 許國威는 관왕묘의 영험을 강조하면서 조선 국왕에게 존신하기를 강권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은 남대문 밖에 세워진 남관왕묘에서 일어났다.

이듬해 명에서는 도성 근처에 또 하나의 관왕묘를 세우려 했다. 명에서 원했던 장소는 남대문 밖의 어느 곳이었다. 선조는 승정원에 내린 비밀 전교를 통해 남대문 밖 대신에 동대문 밖이나 훈련원을 후보지로 제시하게 했다. 후보지 결정에 영

11) 『宣祖實錄』 권100, 31년 5월 丙申.
12) 『宣祖實錄』 권103, 31년 8월 己巳.
13) 『宣祖實錄』 권100, 31년 5월 戊申.

www.kci.go.kr

향력이 있는 葉靖國을 설득하기 위해 海平君 尹根壽를 보내라고도 지시했다. 선조가 동대문 밖을 원했던 첫 번째 이유는 불확실하다. '중국인에게 들었던 것이 있다'거나 '吉地' 운운한 것을 보면 관왕묘의 영험함과 동대문 밖이라는 지역이 관련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14]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었다. 공개적으로 천명된 명분은 무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자 옛날 武成王廟를 설립했던 옛 터이기도 했던 訓練院 근처라는 것이다.[15] 훈련원이 무사들을 연습시키는 곳이므로 관왕묘를 그곳에 세우게 되면, 중국 역대 왕조에서 무성왕묘를 건립했던 뜻, 즉 무묘를 건립하는 의미가 담긴다고 했다.[16]

결국에는 동대문 안쪽에 있던 훈련원 근처 대신에 동대문 밖 영도교 옆에 동관왕묘가 설립되었다. 남관왕묘와 같이 청기와 지붕을 얹은 모양이었다. 선조는 무묘로서 관왕묘의 의미를 강조했지만, 실록에서는 관왕묘를 세운 일을 '虛誕한 것(거짓되고 믿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 번도 잘못되었는데 또 잘못된 토목공사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며 비판했다.[17] 관왕묘가 세워진 후에는 훈련원 관원이 수 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키도록 했다가 다시 참봉을 정해서 지키게 했고[18] 매년 봄 가을 경칩일과 상강일에 관원을 보내서 제사지내도록 했다.[19]

17세기 초 전쟁의 와중에서 관왕묘가 세워지고, 국가에서 관원을 보내서 정기적으로 제사지내게 하는 일도 정해졌지만, 국가의 관왕묘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다.

---

14) 『宣祖實錄』 권111, 32년 4월 戊寅. "南大門外旣有關王廟 不宜疊建, 須於東大門外爲之 其所以然者 有微意 予曾聞天朝人之言矣.(중략) 旣以東方爲吉 則城內城外 竝爲參商議啓 言于禮曹"

15) 武成王은 강태공이다. 당나라 숙종 때 강태공을 높여 무성왕으로 삼고, 사우를 세우고 제사지냈다. 제사의 위격을 문선왕묘 즉 공묘와 비슷하게 하고 역대의 무장 64인을 배향했다. 세종때에 무성왕묘 건립 논의가 있었지만 문무를 둘로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세종의 뜻에 따라 중지되었다.(『世宗實錄』 권51, 13년 3월 辛巳) 다시 세조대에 양성지의 건의에 의해 건립이 정해졌다가 시행되지 못하였다.(『世祖實錄』 권3, 2년 3월 丁酉)

16) 『宣祖實錄』 권111, 32년 4월 戊寅.

17) 『宣祖實錄』 권114, 32년 6월 己亥.

18) 『宣祖實錄』 권130, 33년 10월 己亥; 33년 10월 庚寅.

19) 『光海君日記』 권54, 4년 6월 己亥.

www.kci.go.kr

국가의 공론을 모아 실행한 것도 아니었기에, 실록의 사론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허탄해서 믿지 못할 제향에 고갈된 국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상당했다. 무묘의 의미가 담겼다는 선조의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무묘로서의 상징성을 지녔다고 보기에는 17세기 동안 국가의 관왕묘 의례는 매우 형식적이었다. 명나라 군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 외에 관우의 사당이 무묘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과 동의의 과정도 없었다.

대신 주로 중국 사신들의 관광 장소로서 중시되었다. 명 사신들이 오면 반드시 배례하는 장소였고, 청에서도 사신이 오면 늘 방문하는 곳의 목록에는 관왕묘가 포함되어 있었다.[20] 그들은 관왕묘에 가서 再拜禮를 행하거나 一拜 再叩頭 또는 三叩頭禮를 행하였고, 그들의 행적은 일일이 보고되었다. 왕조의 입장에서는 관왕묘 앞은 국상 발인 때에 노제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동교로 행행할 때에는 가마를 갈아타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그 위치를 중시했기 때문이지, 관왕묘라는 점이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관왕묘는 칙사방문시 외에는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뭇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동관왕묘 근처에는 동활인서가 있었고, 도성 근처에 전염병이 돌면 길 좌우로 병막이 설치되어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했다.[21] 도성을 출입하기 위해 지나는 사람들마저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번잡하고, 때로는 위험하게까지 느껴지는 곳이었다. 숭례문에서 남관왕묘까지 이르는 도로 또한 시전 假家로 인해 지나가기 힘들었다.[22]

현종 때의 기록이다. 남관왕묘의 소상에 물기 때문에 흘러내린 자국이 생겼는데, 서울 백성들이 피눈물이 흘러내렸다고 앞다투어 전했다고 한다. 관왕 얼굴에 흐르는 피눈물을 어떤 징조로 받아들였는지 실록은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이 기록에서 당시 사람들이 관왕묘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어두운 실내에서 관우 신상

20) 『承政院日記』 43책, 인조 12년 5월 丙戌; 인조 13년 1월 壬子; 인조 13년 6월 庚子; 인조 14년 1월 癸亥; 인조 14년 5월 壬子; 인조 15년 11월 戊子; 인조 18년 11월 辛巳; 인조 19년 11월 甲戌; 효종 4년 1월 庚午; 숙종 2년 3월 壬寅.

21) 『承政院日記』 173책, 현종3년 5월 癸未 "今聞東關王廟近處路傍左右 連結病幕 其數甚多 往來行人 穿過其中 傳染之患 勢所必至. 且端午陵寢祭物及香祝陪往之時 亦由此路 觸犯穢氣 事極寒心. 漢城府及該部 不能致察禁斷 請當該官員 竝從重推考 病人則盡爲移該署."

22) 『承政院日記』 344책, 숙종 17년 3월 壬寅.

www.kci.go.kr

에 생긴 작은 변화까지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숙종 초에는 무뢰배 6~7인이 관왕묘에 침입해서 관왕의 소상에 입혀진 옷을 찢고, 흙으로 빚은 다른 상의 왼팔을 부러뜨린 후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23] 이렇게 선조~숙종 초까지 이미 세워진 관왕묘를 국가에서 소극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었지만, 관왕묘를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3. 숙종대 관왕묘의 재발견

1691년(숙종 17) 2월 27일 숙종은 무안왕의 사당을 보수하라는 비망기를 내렸다.

> 아! 武安王의 忠義는 千古에 드문 것이다. 이제 한번 들러서 遺像을 본 것은 참으로 세상에 드물게 서로 느끼는 뜻에서 나왔고, 또한 武士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니, 본디 한때의 游觀을 쾌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아아, 너희 將士들은 모름지기 이 뜻을 몸 받아 충의를 더욱 勉勵하여 王室을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바라는 것이다. 또 동쪽과 남쪽에 관왕묘가 파손된 곳은 該曹에서 고치고,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되 제문 중에 가운데에 내가 멀리 생각하고 경탄하는 뜻을 갖추도록 하라.[24]

이 때 숙종은 貞陵, 즉 복위된 신덕왕후의 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특별히 동관왕묘에 들러 참배했다. 관왕묘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조선의 왕이 자발적으로 관왕묘를 찾은 것이다. 위의 비망기에서 숙종이 관우를 통해 강조한 것은 그의 '忠義'였다. 그의 보기 드문 충의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감동받았다는 개인적 소감을

23) 『承政院日記』 262책, 숙종 3년 10월 辛酉 "禮曹啓曰 卽接東關王廟守直官牒報 則去月晦日午後 無賴輩六七人 擅冒亂入 自開廟門 殿內作亂 無所不至. 關王所着長衫左邊一幅 裂破數尺許 殿內土人左臂 亦爲破毁 欲爲捕捉之際 一時逃散. 故連日窺伺 則太平館近處居池成龍妻父張僉知稱名人 爲首作亂云 極爲驚駭 張哥稱名人 則令攸司 囚禁治罪 長衫等毁破處 擇日修改 何如? 傳曰 允"

24) 『肅宗實錄』 권23, 17년 2월 癸未.

www.kci.go.kr

밝힌 후, 무사들을 격려하여 관우와 같이 충의를 갈고 닦아 왕실을 지키라는 바램을 적었다. 숙종이 이렇게 '충의'를 강조했기에, 관왕묘 의례는 왕실=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여 국왕 중심의 권력을 재구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써 해석되기도 했다.[25)]

이러한 해석은 일면적으로는 타당하나, 사실 '충의' 강조를 강력한 왕권에의 의지로 해석하는 것은 조선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되었던 '충의'를 너무 평면적으로만 조망하게 한다. 숙종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숙종은 위의 비망기를 내리면서, 자신이 關王圖를 보고서 썼던 시도 함께 소개했다.

> 내 평소 수정공을 사모하였지/生平我愛壽亭公
> 절의와 오롯한 충성 만고에 우뚝하네/節義精忠萬古崇
> 바루고 회복하길 뜻 세우고 노력하다 먼저 떠나시니/志勞匡復身先逝
> 천추에 열사 눈물 마음 속에 가득하네/烈士千秋涕滿胸[26)]

위 시에서 수정공은 관우를 지칭한다. 비망기에서의 '충의'는 시 구절에서는 '절의'와 '정충'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조선 왕들의 필독서였던『자치통감강목』이나 조선후기인들이 즐겨 읽었던『삼국지연의』등에서 명시되었던 촉한정통론적 역사 해석의 맥락에서, 관우가 유비, 장비와 함께 도원에서 결의하며 목표로 한 것은 천하의 패권이 아니라 漢 왕조의 회복이었다.[27)] 황건적의 난으로 이미 세력이 다한 나라 대신에 새롭게 흥하고 있는 세력을 쫓지 않고 漢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 사라진 나라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구분하여 '절

25) 심승구, 2012,「관왕묘 의례의 재현과 공연예술화 방안 ,『공연문화연구』24, 271면; 이성형, 2014,「대명의리론의 추이와 조선 관왕묘-선조~숙종년간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53, 381-383면; 한종수, 2015,「조선후기 숙종대 관왕묘 치제의 성격 ,『역사민속학』21, 89-97면.

26)『承政院日記』, 숙종 17년 2월 27일 계미;『국조보감』권49, 숙종조 9, 18년 임신 9월

27) 조선후기 민간과 왕실에서의『삼국지연의』독서에 대해서는 이은봉, 2007「삼국지연의의 수용양상연구 , 인천대학교박사학위논문; 민관동, 2014,「삼국지연의의 국내유입과 출판」,『중국문화연구』24; 김수영, 2015「효종의 삼국지연의 독서와 번역」,『국문학연구』32; 김수영, 2016,「영조의 소설 애호와 그 의의」,『인문논총』73권 1호 참조.

www.kci.go.kr

의'와 '정충'으로 표현한 것이다. 숙종은 관우가 '匡復'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漢을 회복하려는 뜻을 품고 노력했지만 이를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바로 이 점이 세대와 국가를 뛰어넘어 열렬한 선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나라가 쇠약해지거나 망한 후에도 변함없이 그 나라에 대한 충절을 다하려는 마음을 춘추전국시대에 周나라를 회복하려는 의지라는 의미에서 '尊周大義'라고 하였다. 이 존주대의가 공자가 썼던 『春秋』라는 역사책을 통해 강조되었기에 '춘추대의' 또는 '춘추의리'라고도 한다. 중국 문화 전통 속에서 주나라는 단지 고대에 존재했던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정치와 문화를 가졌던 평화로운 역사 시기라는 의미인 '요순삼대' 중 한 나라였다. 후대인들에게 주의 정치는 '先王'의 정치 또는 '聖王'의 정치로써 이상화되었다. 따라서 주의 회복이란 바로 그러한 이상적 정치와 정치적 문화의 회복을 의미했다. 조선후기에는 '존주'가 '尊明'의 의미로도 쓰였다.[28] 이는 명이 표방했던 바 주자성리학[신유학]의 방법으로 '선왕의 시대'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정신을 조선이 공유하며, 명이 망하고 없지만 그러한 명의 지향을 잊지 않고, 청의 패권이 확립된 지금에도 조선은 그 길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였다.

숙종이 관우에게서 발견한 것은 한 왕실과의 이해관계를 떠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한 왕조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존주'의 충, 개별 국가를 넘어선 보편적 정의[大義]에 대한 충이었다. 관왕묘를 찾은 후 숙종은 또 다시 어제시를 내렸다.

---

28) 이 때 존명의 '명'이 실재하던 국가로서 명이 아니었음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다.(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우경섭, 2013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김호, 2011 「조선후기의 중화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대보단의 역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정치평론』 9; 김호, 2013 「조선후기 화이론 재고」, 『한국사연구』 162) 실제 국가 명이 아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혈연이나 지역이 아닌 문화', '보편적 중화문명', '도덕적 문명', '왕도' 등 약간씩 다른 용어로 설명해왔지만, 모두 현대사회의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패권적 정치논리와 정치적 심성과 다른 차원에서 공존과 평화의 방법을 도모했던 조선의 정치문화적 심성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www.kci.go.kr

동쪽 교외 일이 있어 옛 사당을 지나며/有事東郊歷古廟
들어가 유상 보니 숙연하고 또 맑네/入瞻遺像肅然淸
오늘에 공경하는 마음 더욱 절실하니/今辰致敬思逾切
바라건대 우리나라 만세토록 편안케 하소서/願佑吾東萬世寧

숙종은 관왕묘를 영험한 무장을 모시고 거기에 빌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가 관왕묘 안의 유상을 보고 받은 느낌은 숙연함과 더불어 '淸'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맑은 기운이었다. 훌륭한 무장의 사당에서 그의 용맹함이나 신이한 전투 능력이나 전술적 기획력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간직했고,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었던 의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의리를 사욕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맑음'으로 표상해냈다. 우리 동방을 만세토록 편안하게 할 것 역시 관우가 보여주었던 바 '節義에 바탕한 武'였다. 숙종은 무안왕을 그린 그림을 보고 지은 시와 무안왕묘에 들른 후 지은 시 2수를 적은 어필누판 2부를 내려주고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 걸어 자신의 추모하는 마음을 표장하게 했다.[29]

1703년(숙종29) 청의 칙사를 서교에서 전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숙종은 남관왕묘에 들렀다. 이때의 전교에서도 역시 관왕의 '대의에 대한 오롯한 충성[精忠大義]'를 언급했다. 명 태조가 천하의 도읍에 관우의 사당을 세웠던 것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겼다.[30] 관우 사당에 들르겠다고 명한 후 숙종은 숭례문 안의 宣武祠에도 관원을 보내 치제하게 했다. 선무사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왔던 명군의 장수들이 제사받는 공간이었다.

홍문관 교리 李觀命과 李晩成은 돌아다니며 구경한다고 여겨질 수 있고 의주를 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며 숙종의 관왕묘 행차에 반대했다. 그러나 "관왕의 정충대의가 밝게 드러나 수치를 씻고, 흉악한 무리를 제거하려는 뜻이 어제처럼 빛

29) 『承政院日記』 349책, 숙종 18년 9월 癸亥. 1743년(영조19) 영조가 동관왕묘에 들렀을 때 숙종의 어제시를 새겨서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에 걸게 했다. 당시 숙종 어제 현판이 없어서 다시 걸게 한 것인지, 이미 있는데 추가로 걸게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承政院日記』 962책, 영조 19년 8월 庚午)

30) 『承政院日記』 412책, 숙종 29년 6월 壬辰 "上曰 關武安王精忠大義 昭如日星. 皇明太祖高皇帝時 肇創壽亭侯廟 天下郡邑 莫不立祠 則崇奉之意 蓋可想矣."

www.kci.go.kr

나며, 천년 후에도 족히 충의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며 관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숙종 방식의 정의에 동조했다. 관왕묘 안에서의 대화 역시 같았다. 兪集一은 "관왕의 漢 왕조를 위한 마음이 죽은 후에도 오히려 민멸되지 않았다"고 하고, 또 "명 태조가 창업한 정당성이 한 왕조와 다르지 않기에 관왕의 神冥이 보우했던 것"이라고도 했다.[31] 명 태조가 번양에서 싸울 때 관왕이 현신해서 바람머리를 돌려서 적의 전함을 불태웠다는 설에 대해서도 단지 관우의 영험성만을 강조하기 않고 명 왕조 창업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한 것이다. 관왕의 한 왕조에 대한 충성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아니라 한 국가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 정의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이 역시 유집일의 독견이 아닌 당시 많은 조선 사람들이 공감했던 견해였다.[32]

1710년(숙종36)에는 서울 관왕묘의 제향 의절을 정했다. 宣祖가 친제를 올렸을 때 의절을 상고했다. 선조 때에는 배례를 취했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었다. 서종태는 당시 명나라의 장수들이 조선에 머물며 묘를 세우는 일을 주관했기에 친림할 때에 성대한 예를 썼던 것으로 이해했다. 先儒와 先賢을 제외하고 임금이 다른 왕대의 신하에게 배례를 취하는 법은 없다며, 명에서는 음조의 공로를 포장하여 왕의 작호를 봉하고 사우를 천하 곳곳에 세웠으니 숭봉이 지극하였지만, 전대의 명장에게 친림하여 절하는 예가 지나칠 수 있다며 儒臣에게 명하여 근거할 전례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3] 숙종은 이 생각에 바로 동의하지 않았다. 숙종은 관우를 촉 왕조의 무장이나 명 황제에 의해 왕의 작호를 추봉받은 장수로만 여기지 않고 군주가 세상을 경영해나갈 때 필요한 '무'라는 수단이 근거해야 할 가치를

31) 『承政院日記』 412책, 숙종 29년 6월 癸巳 "集一曰, 關王爲漢之心, 死猶不泯。自漢以後, 天地之間, 豈無戰爭之時, 而關王所以冥祐於皇明之時者, 蓋明太祖創業之正大, 同符乎漢祖, 故有此冥祐之事, 豈不異哉? 明太祖三酹漢祖者, 蓋其志氣之逈相感也。創立關王之廟者, 所以崇報其精忠大節也。"

32) 이렇게 관우의 현성설은 매우 주의깊게 채택되었다. 즉 관우가 나타나 영험한 힘으로 명이나 조선을 도왔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관우가 도울만한 정의로운 대상이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33) 『承政院日記』 452책, 숙종 36년 3월 丁卯.

www.kci.go.kr

밝혀주는 사표가 될만한 인물로 여겼다. 숙종은 실록을 고출하여 선조 때의 의절을 살펴보게 했고, 선조 때에 재배례를 했다는 사실을 전거로 삼아서 이후 관왕묘에 친림했을 때 재배례를 행하게 했다.[34] 성주, 안동, 고금도 등 지방에 있는 여러 관왕묘의 상황을 조사하고[35] 보수 및 관리의 규칙도 정했다.[36] 제향 규칙 역시 서울에 준하도록 했다. 숙종에 의해 재발견된 관왕묘의 의미가 바로 조선에 널리 공유된 것은 아니었다. 관왕묘의 무묘 의례의 정립과 실행을 통해 숙종식 해석이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4. 영조와 정조, 관왕묘 의례를 통한 조선적 武의 설득

1725년(영조1) 청나라 사신을 전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영조는 멀리서 남관왕묘를 보게 되었다. 바로 명을 내려 "충성과 절의를 사모하고 흠앙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관왕묘에 치제하고, 선무사에도 아울러 제사지내 내가 숙종의 尊周하려는 큰 의리를 받들고자 하는 뜻을 보이겠다"고 했다.[37] 1727년(영조3)에는 懿陵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관왕묘에 들러 재배례를 행했다. 이때 내린 전교에도 무안왕의 '충의대절'을 흠모해왔다고 밝혔다.[38] 배례를 행한 후 동묘와 남묘에 각각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동관왕묘 관우상의 용포와 어제현판의 사롱을 모두 개비

34) 『承政院日記』 461책, 숙종 37년 6월 癸未. 이 규정이 마련된 후 숙종은 관왕묘에 다시 가지 못했고, 영조대 이후에야 재배례 의주가 적용되었다.

35) 『承政院日記』 413책, 숙종 29년 8월 壬午; 숙종 37년 1월 庚寅.

36) 성주와 안동의 관왕묘에 있는 관왕의 유상과 사당 건물은 중국 장수들이 세운 것이었다. 성주는 관청에서 관리·보수하고 수호를 폐하지 않았다. 안동은 사찰 근처로 옮겨 세워 승려들이 수호해왔었다. 조정에서는 수령이 묘직을 정해 수호하게 하고, 묘우를 고치는 일도 일체 성주의 예에 따르게 했다.(『承政院日記』458책, 숙종 37년 1월 庚寅)

37) 『承政院日記』, 영조 원년 3월 壬戌 "備忘記 予於昔年 於東郊歷觀武安王廟矣. 今番迎送客使時 南廟當途回望 其可無欽歎之志耶? 其令該曹遣官致祭 以表余慕忠欽義之意 而門內宣武祠 亦遵先朝古事 別爲致祭 以示予仰體聖祖尊周之大義 下金樘"

38) 『承政院日記』, 영조 3년 2월 己未.

www.kci.go.kr

하게 했다. 1736년(영조12) 『宋朝名臣錄』에서 존주의 의리를 천명한 胡銓의 封事를 거론하며 관왕묘 및 선무사 의례를 행하는 의미를 부연 설명했다. "내가 壬辰日記를 보고 황조의 재조지은에 감명을 받았다. 丙子日記를 보니 두 일이 너무도 달라 마음이 항상 아프고 한스러웠다. 지난 번 선무사에 제향을 올린 것은 대개 이것 때문이었다. 선조의 어가가 관왕묘에 행차했을 때 읍례를 행한 것은 그 충절이 가상하기 때문이었는데 드디어 다시 재배례로 정하고서 미처 행하지 못했었다. 내가 을사년 이후에 드디어 재배례를 행했다. 임진년 선조가 천장이 데리고 온 彭中軍을 보낼 때에 서로 揖하고서 보냈는데, 선조의 일을 금일에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주 슬프고 슬프다. 선무사에 매번 친히 가서 한번 읍하고자 하나 저들의 접대하는 방로에 있어서 차마하지 못할 바가 있어서 대신들에게 묻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다."[39] 관왕묘와 선무사가 모두 이미 사라진 옛 왕조를 회복하려는 존주 의리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임을 강조한 것이다.

1739년(영조15) 우사단에서 기우제를 지낸 후 돌아오는 길에도 남관왕묘에 들렀다.[40] 1743년(영조19) 정릉행행 후 환궁하는 길에는 동관왕묘에 들렀다.[41] 1691년 숙종이 처음 동관왕묘에 들렀던 것도 정릉에 능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루어졌었다. 영조는 53년 만에 같은 행차가 이루어진 감회를 말하며, 숙종의 어제를 판에 새겨 게시하게 했다.[42]

1746년에는 관왕묘 의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정리되었다. 이 해 8월 10일 영조는 靖陵 행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남관왕묘에 들렀다. 이곳에서 『징비록』 및 야사에 기록된 바 관왕이 顯聖해서 명군을 도왔고, 이 때문에 명에서 비용을 내려

39) 『承政院日記』 835책, 영조 12년 10월 丁卯.

40) 『承政院日記』 891책, 영조 15년 5월 甲戌 "傳曰 今番歷拜者 興慕忠義於幾百載之下也"

41) 『承政院日記』 962책, 영조 19년 8월 庚午; 19년 8월 辛未 "傳曰 歷拜武安廟 曠世相感之意 此廟歷瞻 卽辛未年依宋太祖歷瞻武成王廟下敎行之者"

42) 당초 어제를 동쪽 협칸에 게시하려 했으나 동관왕묘의 경우 비좁아서, 새로 새긴 어제 2판은 정당 문 위에 걸고, 명 사신의 현판은 원래대로 동서협칸에 게시하였다. 남관왕묘는 동관왕묘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동쪽 협칸에 게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承政院日記』 963책, 영조 19년 9월 8일 정해)

www.kci.go.kr

관왕묘를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 일을 자세히 고증하게 했다.[43] 관왕묘 건립 사적이 소개된 자료로는 유성룡의 기록, 허균의 기록 등이 거론되었다.[44] 관왕의 충의와 무용을 강조하면서 숙종이 관왕묘에 찾아가게 된 이유를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숙종이 三國史를 읽다가 麥城에서 관우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탄식하고 격앙되어 곁에 모시는 사람에게 읽기를 멈추도록 했으며, 이 때문에 관왕묘에 찾아가 그의 충의를 되새겼다는 이야기도 전했다.[45] 또 『동국역대총목』의 기록도 참조해가며 「관왕묘기」를 지었다.[46]

영조는 「관왕묘기」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관왕의 충의 해석을 존주-춘추의리-대명의리의 맥락과 연결지었다. 임진왜란 당시 관왕이 顯聖해서 명군을 도운 일에 대한 전거를 찾은 후 직접 「關王廟記」를 지어 비를 세우게 했다. 영조는 명 조정에서 관왕묘를 조선 땅에 세우게 한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관우의 절의를 드러내 칭송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관우가 현성하여 번방을 보호해 준 공로를 생각해서였다는 것이다.[47] 관왕묘를 세운 근본적 의의-명의 파병-관우가 조선의 승리를 도운 일을 연결 지으며, 이미 멸망한 옛 왕조를 그리는 마음[匪風下泉의 마음]이 든다고 했다. 국가의 이익을 절대시하지 않고 '절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 온 명이 조선에 원군을 보내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천하의 재용을 다 써버려 결국 쇠망하고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관왕의 사당이 조선에서 어떤 기억과 가치를 상징하는가를 재확인했다.

명이 자기 나라의 이익보다 조선과의 의리를 앞세웠다는 사실을 통해 명은 중국 역사상의 일개 왕조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리보다 앞세운 정의로운 국가의 표상"으로 자리했다. 관왕의 사당은 이러한 명이 보여준 큰 의리, 즉 '大明義理'를 표

43) 『承政院日記』 1007책, 영조 22년 8월 癸酉.

44) 『承政院日記』 1007책, 영조 22년 8월 乙亥. 야사에 전하는 관왕 현성의 기록은 『성호사설』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星湖僿說』 권9, 人事門, 關王廟)

45) 『承政院日記』 1007책, 영조 22년 8월 丁丑; 영조 22년 8월 甲申.

46) 『承政院日記』 1007책, 영조 22년 8월 甲申; 영조 22년 8월 乙酉.

47) 『承政院日記』 1007책, 영조 22년 8월 甲申 "皇朝之命建此廟 實出於褒崇節義 而亦念顯聖保藩之功"

www.kci.go.kr

상하는 공간이었다. 남관왕묘에 관우가 밤에 불을 밝히고 『춘추』를 읽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것 역시 관우가 단순 충절의 상징이 아니라 춘추=존주=대명의리의 상징임을 보여주었다.[48] 관왕묘에서의 의례는 '대명의리'를 환기시키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이러한 방향으로의 다양한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섭렵을 마친 영조는 남관왕묘와 동관왕묘에 한날 행차했다. 조선에 파병된 명군에게 현성해 도와준 공로를 강조한 '顯靈昭德王廟'라는 명 황제의 친필 현판과 비문은 인출해서 춘추관에 임시로 두었다가 강화도 정족산성 사고에 보관하게 했다.[49]

1750년 懿陵 행행시,[50] 1753년 선농단 친경 행행과 의소묘 행행,[51] 1755년 順康園 행행[52] 및 모화관 송칙,[53] 1757년 宣武祠·懿昭墓 행행,[54] 1759년 明陵행행[55] 및 의릉행행, 1760년 준천소 거둥,[56] 남단 거둥,[57] 1761년 의릉행행,[58] 1762년 우사

48) 『承政院日記』 1122책, 영조 31년 8월 戊辰 "至關王廟 上行再拜禮. 見壁上有明燭圖曰 關王好讀春秋 此必明燭達朝時也" 관왕묘 안 『춘추』를 읽고 있는 관우 도상이 언제 그려진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대개 최초에 완성된 상태 그대로 보수하며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추정 근거는 두가지다. 현종대 동관왕묘 내부를 수리할 때의 기록을 보면 正殿의 양벽과 兩廡 좌우벽을 백토로 발랐는데, 너무 거칠게 발라져 장차 그림을 그릴 수도 없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193책, 현종 7년 3월 7일 정해) 영조대 연행사들이 돌아왔을 때 중국 관왕묘 내부 모습에 대해 담소했는데, 관우 소상을 중심에 두고 4인이 시립한 모양이나 청룡도, 僧人[보정화상], 周倉, 赤兎馬, 壁畫 등이 우리나라 관왕묘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承政院日記』 1057책, 영조 26년 6월 乙酉)

49) 『承政院日記』 1007책, 영조 22년 8월 辛卯.

50) 『承政院日記』 1059책, 영조 26년 8월 庚寅.

51) 『承政院日記』 1091책, 영조 29년 2월 己亥; 『承政院日記』 1092책, 영조 29년 3월 己亥.

52) 『承政院日記』 1122책, 영조 31년 8월 癸卯.

53) 『承政院日記』 1122책, 영조 31년 8월 戊辰.

54) 『承政院日記』 1141책, 영조 33년 2월 甲子.

55) 『承政院日記』 1172책, 영조 35년 8월 壬辰.

56) 『承政院日記』 1179책, 영조 36년 3월 乙卯.

57) 『承政院日記』 1181책, 영조 36년 5월 壬午.

58) 『承政院日記』 1196책, 영조 37년 8월 辛卯 이 날 '萬古忠節·千秋義烈' 8자를 써 게시하게 했다.

www.kci.go.kr

단 기우제 거둥,[59] 사도세자 묘소 거둥,[60] 1764년 남단 기우제 거둥[61]과 선농단 기우제 거둥,[62] 1767년 친경 거둥,[63] 1768년 헌릉 거둥,[64] 1769년 석우 성농 거둥,[65] 1770년과 1771년, 1773년 석우 거둥,[66] 1774년 사도세자 묘소 거둥[67] 등 도성 밖으로의 행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조는 거듭 관왕묘에 들러 재배례를 올렸다. 1771년에는 세손과 함께 남관왕묘에 들러 행례했다.[68] 1776년에는 세손에게 동관왕묘에 가서 전작례를 올리도록 했다.

정조 역시 영조와 마찬가지로 도성 밖 행행시에 관왕묘에 반드시 들러 예를 올렸다. 이를 숙종과 영조가 송나라에서 군행할 때 武成王[태공망] 묘에 전배한 의미를 취해 배례를 행했던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9] 1785년에는 관왕묘의 제사 의절에 갑주 착용과 어제 악장을 연주하게 하는 등 무묘에 부합하게 다듬고,[70] 숙종의 어제, 영조 어제, 사도세자의 예제 및 자신의 글을 새긴 비를 묘정에 세웠다.[71]

정조가 쓴 묘비명에는 숙종에서 영조를 거쳐 정립된 관왕묘의 의미가 더욱 선

59) 『承政院日記』 1207책, 영조 38년 6월 壬寅.
60) 『承政院日記』 1208책, 영조 38년 7월 癸未.
61) 『承政院日記』 1230책, 영조 40년 5월 己巳.
62) 『承政院日記』 1231책, 영조 40년 6월 庚寅.
63) 『承政院日記』 1264책, 영조 43년 2월 壬戌.
64) 『承政院日記』 1278책, 영조 44년 3월 庚戌.
65) 『承政院日記』 1282책, 영조 44년 7월 乙未.
66) 『承政院日記』 1307책, 영조 46년 7월 丙午; 『承政院日記』, 영조 47년 5월 癸丑; 영조 47년 9월 癸卯; 영조 48년 4월 庚午; 영조 49년 5월 己巳.
67) 『承政院日記』 1351책, 영조 50년 5월 甲子.
68) 『承政院日記』 1322책, 영조 47년 10월 己丑.
69) 『承政院日記』 1446책, 영조 3년 8월 甲寅.
70) 악장은 이듬해 완성되어 1785년 2월 정기 제향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악공들은 모두 介胄를 착용하고 五方旗幟를 세웠다. 迎神에는 王在章을, 奠獻에는 肹蠁章을, 送神에는 錫嘏章을 연주하였다. 악기는 中鼓 1, 杖鼓 2, 觱篥 2, 大笒 2, 太平簫 2, 大金 1, 小金 1, 歌 2, 奚琴 2였다.(『일성록』, 정조 10년 2월 4일 무인)
71) 『承政院日記』 1589책, 정조 9년 9월 丁卯; 『일성록』, 정조 9년 9월 25일 을사.

www.kci.go.kr

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 비문은 무묘인 관왕묘에서 연주될 악장의 가사로도 쓰였다.[72)]

상제 곁에 계시는 왕 / 王在帝傍
굳센 정신 영웅의 기백으로 / 魄毅神雄
적색 말에 시퍼런 칼 들어 / 赤驥翠銼
오랑캐를 말끔히 소탕했네 / 廓掃蠻戎
향 올린 제사에 절하고 조아리기 / 瓣香拜稽
만방이 서로 같네 / 萬方攸同
우리가 처음 제사 모셨던 것도 / 誕我肇祀
단지 충절을 숭상했던 때문은 아니라네 / 匪直尙忠
(중략)
뜰을 둘러선 개사들 / 環庭介士
가슴에 땀이 젖고 머리털 치솟아 / 竪髮沾胸
번쩍번쩍 위아래로 오르내리니 / 剡剡上下
속마음 아니 시원한가 / 弗遐皦衷
신이 이르러 오면 / 神之迪矣
마치 손잡고 만나는 것 같아 / 如相攀逢
이 하늘 땅이 다하도록 / 地久天長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지내소서 / 永食吾東

위 묘비명에서 관우는 단지 충절의 상징이 아니라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정조는 관우를 굳센 정신와 영웅의 기백으로 적토마와 청룡도로써 오랑캐를 말끔히 소탕한 장수로 그려냈다. 관우가 싸운 적은 내전으로 갈라진 한 왕조의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정조는 '선왕의 도', '중화의 평화-공존적 문화 지향'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 적들-만융-과의 싸움을 더욱 강조했다. 관왕묘에 세워진 묘정비의 글에서 한 왕조의 회복을 위한 관우의 싸움이 국가의 내부와 외부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질서'를 흔드는 적들과의 싸움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를 관왕묘 의례 때 연주될 악장의 노랫말로 삼아 뜰에 둘러선 군사들과 조선 사람들이 관우의 정신을 본받아 무란 그런 정의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알게 하고자 했다. 왕조의 입장에서

72) 『弘齋全書』 卷15, 碑, 「武安王廟碑銘」

www.kci.go.kr

정의를 위한 무란 스스로에게도 위협일 수 있었다. 인의에 바탕한 정치 체제를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수많은 자발적 관우를 만들어내는 것은 왕조의 몫이었다. 무묘의 상징으로 관우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이렇게 서울의 관왕묘 뿐 아니라 지방에 산재한 관왕묘들에도 같은 제사 의례를 써서 관우의 의미를 지방 곳곳에서도 공유하고자 했다. 관왕 외에 악비도 사당에 모셔 제사지내 尊周의 의리를 되새기게 했다. 숙종은 『宋史』를 읽다가 악비가 나오는 대목에 이르러 시대가 멀리 떨어졌음에도 감격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며, 영유의 제갈량 사당에 악비를 배향하게 했다. 영유에 있는 제갈량의 사당이란 선조가 북으로 피난할 때 영유에 제갈량이 거처했던 곳과 같은 지명이 있는 것을 보고 세우게 했다는 사당이다. 단지 지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갈량을 떠올렸을 정도로 나라의 위기를 구할 절의와 모략이 절실했으리라. 선조대 세워진 영유의 무후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허물어졌는데, 현종때에 다시 고치고 현판을 게시하게 하여 선조 때와 다름없는 왕조의 생각을 알렸다. 숙종은 거란과의 화의를 배격하고 송의 회복을 위해 싸웠던 송나라 장군 악비의 행적에 감명받아 무후사에 합향하도록 하며, 이 조치가 백대 이후까지 바람에 전해지는 소리[風聲]처럼 전해지고 굳건히 세우는 바가 있게 되길 바랬다.[73]

영조대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조현명이 북경에서 문천상의 유상을 가지고 왔는데, 영조가 영유의 와룡사에 송나라 文天祥을 배향하고 그 의미를 새긴 비를 세우게 했다. 영조는 제갈량은 한나라를 회복하고자 했고, 악비는 휘종과 흠종을 맞아오려 했고, 문천상은 송조를 보존하려 하였다며, 그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충의에 감동받아 제향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74] 문천상까지 배향하게 된 후 와룡사는 三忠祠라는 어액을 달게 되었다. 삼충사의 정전에는 가운데에 제갈무후, 왼쪽에는 악비, 오른쪽에 문천상의 소상이 안치되었다. 제갈량은 학창의를 입고 와룡관을 썼으며 손에는 깃털달린 부채를 들었으며, 악비는 갑옷을,

73) 『肅宗實錄』 권28, 21년 3월 辛卯.
74) 『英祖實錄』 권71, 26년 3월 己未.

www.kci.go.kr

문천상은 복두를 쓴 모습이었다고 한다.[75]

정조는 숙종이 지었던 三忠의 도상찬을 영유의 삼충사에 옮겨 봉안하게 하고 직접 제문을 지었다. 의리와 무략을 함께 갖추었던 제갈량, 오랑캐에 굴복을 거부하고 싸웠던 악비의 절의, 송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다 끝내 굴복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나아갔던 문천상의 충렬을 거론하며, 동쪽 소중화의 나라에서 세대를 뛰어넘어 기억하는 의의를 되새겼다. 아래는 관우와 종종 비견되었던 악비 도상찬이다.[76]

아, 악왕이여 / 嗟哉岳王
남송의 국운이 불행하였으나 / 不幸南宋
분연히 오랑캐와 화친을 물리치고 / 奮斥虜媾
대일통을 내걸었네 / 揭大一統
올출을 패주시키기는 쉬웠으나 / 走兀朮易
진회를 제거하기는 어려웠으니 / 去秦檜難
예로부터 지사들이 / 終古志士
뜨거운 눈물 흥건히 쏟았다네 / 熱涕汍瀾
돌아보건대 내 세대를 뛰어넘는 느낌에 / 顧予曠感
마치 하루아침 사이인 듯 / 若隔一晨
옛 상자에 보관된 비단 초상에 / 古篋鮫綃
엄연한 정신이 깃들어 있네 / 有儼精神
땅의 거리는 / 地之相距
만 리 남짓하고 / 萬有餘里
세월이 멀기는 / 歲之相遠
천 년 남짓하네 / 千有餘禩
거룩한 표상 시원스럽나니 / 偉表颯爽
지금 해동에 임하였고 / 今焉海東
저 서쪽 변방을 돌아보니 / 睠彼西陲
이 밝은 사당이 정연하도다 / 秩此明宮
이에 유상을 펼쳐서 참배하니 / 于以展之
궁중의 안에서 하였도다 / 于宮之內
이에 희생과 예주를 정결히 받드니 / 載潔牲醴
길이 백대에 제사를 받들리라 / 永享百代

75) 『燕轅直指』 卷4, 留館錄, 癸巳年 1月 13日.
76) 『弘齋全書』 卷21, 祭文, 「肅廟御製贊武侯岳王文山圖像移奉于永柔三忠祠時致祭文」

www.kci.go.kr

4. 민간의 관왕묘 영험성 향유와 비판

영조대와 정조대 관우에 대한 국가적 의례는 바람직한 무의 상징을 세운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지만, 최초로 관왕묘 건립이 이루어지던 시기부터 있었던 관왕의 현성설이나 신병설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거리였다. "관왕이 신병을 내어 皇明을 도와주었다는 설은 진실로 茫昧愧誕[아득하게 어둡고 괴이하고 허탄한]하지만 성동, 성남, 해남, 안동에 모두 묘를 세워서 숭봉하고 있습니다."[77] 1732년(영조 8) 장연의 유학들이 장연의 기산 아래에 기자묘를 세워 주기를 청하는 상소에서 장연과 기자유상의 오랜 인연 및 지명 등을 근거로 기자묘 건립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관왕묘는 이런 허탄한 설에 근거해서도 묘를 세우고 제향을 해오고 있는데 장연에 기자묘를 세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관왕의 신이한 異蹟에 대한 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지방의 관왕묘들이 이러한 영험에 대한 믿음과 기복적 신앙을 부추기고 있다고 여겨 마뜩치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의 관왕묘 역시 관왕의 충의를 기억하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그의 신령스러운 힘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었다. 1791년 숙종이 처음 관왕묘에 갔을 때 동관왕묘에 잡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고 엄하게 지키라는 명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조정은 묘 안에서 음사를 금지시키고자 했다.

> 후세의 풍속이 귀신을 숭상하여 외방의 사묘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많습니다. 비록 중원의 일로써 말하더라도 사녀들이 사묘에 분향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음사와는 다르니 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격의 기도의 경우에는 진실로 금해야만 합니다.

관왕묘에 잡인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유집일의 의견에 대해 신완은

77) 『承政院日記』 742책, 영조 8년 5월 丁巳 "長淵幼學金兌珪等疏曰....**關王之出神兵, 助我皇明者, 誠爲茫昧怪誕, 而城東・城南・海南・安東, 皆建廟而奉之"**

www.kci.go.kr

일반 민들이 분향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무당의 기도는 반드시 금지해야 하며, 이것이 '음사'라고 했다. 숙종의 처분은 신완의 의견을 따라 "무녀가 음사하는 폐단은 금하고 향불을 올려 경건하게 기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막고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78] 숙종 자신이 삼국사를 읽다가 관우의 충의에 감동해서 관왕묘를 찾았던 바, 관우의 충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인정하되 영험을 빌어 혹세무민하는 음사는 배격하겠다는 입장이었다.[79]

그러나 민간의 자발적 신앙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무당의 음사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1746년(영조 22) 윤3월의 기록이다. 관왕묘가 국가적 존숭의 대상이고 숙종의 어제보판을 봉안한 곳인데 사대부들과 상민들이 모두 祈禳을 일삼고 있고 하천과 잡류들까지 매일 모여드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缶鼓' 즉 물동이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두드리는 무당들의 북소리와 떠들썩한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도 했다.[80] 실제 이 해 8월에 영조가 남관왕묘에 갔을 때에 문 앞에 여러 신을 모신 叢祠들이 즐비했다.[81] 1752년(영조30)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남산 근처를 지날 때 성황당이 있었는데 영조가 이에 대해 물었다. 홍낙성은 각 고을에 토지신을 제향하는 성황단과 달리 저 신당은 민속에서 기도하는 곳이며, 세속에서 성황당이라고 하는 곳은 모두 음사라고 답했다. 영조는 관왕묘도 지금은 음사라고 하여 당시 민간에서 관왕묘가 무속이 행해지는 음사로 존재했음을 인정하였다.[82]

영험한 대상에게 기복해서 안녕을 기원하는 풍습은 관가에도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부근당이라고 하는 것이 궁궐 안 승정원이나 홍문관에도 있었다. 궁

78) 『承政院日記』 412책, 숙종 29년 6월 癸巳 "上曰 巫女淫祀之弊則禁之 香火虔誠之禱 不必混加防禁矣"

79) 『삼국지연의』에서 맥성에서 탈출하다가 관우가 최후에 이르는 장면은 숙종 뿐 아니라 많은 소설 독자들을 슬피게 했다. 영조는 소시적에 어떤 부녀가 삼국지연의를 읽다가 맥성의 사건에 이르자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김수영, 2016 「영조의 소설 애호와 그 의미」, 『인문논총』 73권1호, 118면)

80) 『承政院日記』 1000책, 영조 22년 윤3월 辛丑.

81) 『承政院日記』 1007책, 영조 22년 8월 癸酉.

82) 『承政院日記』 1103책, 영조 30년 2월 丁亥.

www.kci.go.kr

궐 밖 관청에도 제각기 신당이 있었다. 관왕묘의 음사는 관청의 부근당이나 민간의 성황당과 다를 바 없었다. 사대부들도 가서 기도하고 유생들도 드나들었다.[83] 조정에서 동관왕묘와 남관왕묘의 음사를 금단하는 조치를 계속 내렸다.[84] 남한산성의 성황당에서 李曙의 신을 모시고, 서로에서 朴燁을 제사지내는 등 영험하다고 믿는 대상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의지하고자 하는 민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었다. 관왕묘가 이미 성립단계에서 관왕의 현성이라는 영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명이 보여준 큰 의리[大明義理]를 강조하는 가운데 관우의 현성 신화가 부분적이나마 활용되면서 민간에서 관우의 영험성을 전유하려는 욕구도 더욱 커졌다. 법으로 음사를 금지하는 조치가 통할 리가 없었다. 국가가 관우를 세대를 뛰어넘어 충의와 절의로 무인의 사표가 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무묘로 만들어갈수록, 관왕의 영험함에 대한 신앙이 증폭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황경원은 국가의 관왕묘 의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관우가 아무리 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위가 한나라 제후에 지나지 않는데 갑주를 입고 軍禮를 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관왕에 대한 배례가 선조가 이미 행했고, 숙종이 정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85] 관우와 같이 공적으로 충분히 숭봉할 만한 이를 제사지내는 사당에 군주가 어떤 예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왕묘 제향의절을 정할 때 이미 논란이 있었다. 先儒와 先賢을 제외하고 임금이 다른 왕대의 신하에게 배례를 취하는 법은 없다며, 명에서는 陰助의 공로를 포장하여 왕의 작호를 봉하고 사우를 천하 곳곳에 세우며 숭봉이 지극하였지만, 전대의 명장에게 왕이 찾아가 절까지 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었다.[86] 황경원의 이 논의는 영조가 관왕묘에 배례를 행한 지 35년이 지나 이미 논란이 없던 상황 속에서 제기된 것이다. 관우가 보여준 충의를 장려하는 것과 정도가 지나친 국가제향에 대한 비판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았다.

---

83) 『承政院日記』 1181책, 영조 36년 5월 壬午.

84) 『英祖實錄』 권98, 37년 12월 丁丑.

85) 『英祖實錄』 권94, 35년 11월 己未.

86) 『承政院日記』 452책, 숙종 36년 3월 丁卯.

www.kci.go.kr

李瀷은 더 본질적으로 국가의 관우 제향이 관왕의 현성설과 귀매를 제거하는 영험함에 대한 신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여기고 비판했다. 우선 관우를 지나친 호칭으로 높이고 귀신과 도깨비를 제거하는 영험을 지닌 존재로 믿어 온 중국 역대 사실들을 비판했다. 송나라에서 관우를 '伏魔帝'로 추봉한 것이나 錢謙益이 『牧齋集』에서 '관성제군'이라 하여 '聖'이라 '帝'라 일컬은 것이 그것이다. 축윤명이 "漢前將軍廟라 이르는 것이 옳다"고 한 것을 제대로 정곡을 얻었다고 보았다. 관우의 신령스러운 능력에 대한 과장이나 맹신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王世貞이 "隋 나라 開皇 중에는 7일 동안이나 神鬼를 부려서 泉寺를 세우게 했고, 송 나라 政和 중에는 風雨를 부려서 蚩尤를 베고 河中의 鹽政을 회복하게 했다."라고 하였던 것에 대해 "신앙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荒誕浮怪가 더욱 심하다"고 비판했다. 송 나라의 '伏魔'란 것은 곧 마귀로써 마귀를 몰아낸 것이며, 마귀가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옛 선비의 명목을 빌려 모습을 나타내서 神異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니 관우의 神은 없다고 했던 朱宗元의 설을 천고의 명견이라고 지지했다. 관우가 마귀를 몰아내는 것은 사람들이 일단 그것을 믿어서 정신이 감응하게 되었을 때 종종 나타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관우가 한 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87] 관우의 현신과 마귀를 제압한다는 믿음이 모두 과도한 신앙 위에서 보게 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었다.

순조대 이후 매번 교외 행행 때마다 관왕묘에서 예를 행하지는 않게 되었다.[88] 대신 관왕묘에서 왕이 직접 전작례를 행하게 되었다.[89] 묘정에서 배례하는 것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폐백과 술잔을 올리는 제향을 거행하였으니, 관왕묘 의례는 더욱 성대해진 셈이다. 헌종, 철종, 고종 모두 이 예를 준용했다. 헌종대에는 남관왕묘에서 친행전작례를 1회 행했고,[90] 철종은 동관왕묘 역림 1회, 남관왕묘 전작례 1회를 행했다. 헌종은 관왕의 영험함에 관심을 두면서도 그 영험함이 『춘추』에 관

87) 『星湖僿說』 권9, 人事門, 關王廟.

88) 순조대에는 관왕묘에 들러 배례를 4회, 전작례를 3회 행했다.

89) 『承政院日記』 1987책, 순조 10년 8월 壬子; 순조 28년 2월 乙未; 순조 32년 3월 己未.

90) 『承政院日記』 2455책, 헌종 12년 9월 壬辰.

www.kci.go.kr

심이 있던 儒將으로서 생전의 충의의 기운이 민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해했지만[91] 철종은 오직 관왕의 영험함에 대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고종 초반에는 관왕묘에 들러 배례를 행하고 시사나 강무를 행하던 정조대의 관례를 따랐지만, 관왕묘는 더욱 더 신령한 힘으로 왕조를 지켜주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1883년 훗날 진령군이라는 나라를 뒤흔든 무당의 신당으로 북관왕묘를 세운 후에는 동관왕묘와 남관왕묘 대신 북묘에서 전작례를 행하였다.[92] 고종은 북묘에서 전작례를 행할 때마다 관왕의 신령이 복을 내려 묵묵히 도운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을 뿐이었다.[93] 관우의 정신을 본받아 武란 외적을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정의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던 노력은 관왕묘 의례 공간에서 사라졌다. 기도하여 막연한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기대서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는 음사를 조정과 왕실이 부추기고 있었다. 관왕묘 의례의 형식은 18세기 이래 무묘 제향의 그것을 따르고 있었지만, 무인들이 힘을 다해 지킬만한 가치와 왕조의 괴리는 점점 더 심해졌다.

5. 맺음말

숙종은 주자성리학적 의리론에 입각한 왕조 역사 재정비를 오랜 시간에 걸쳐 추진하였다. 이는 물론 숙종이 독단한 것이 아니라 형세와 이익이 아닌 의리를 조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잡게 하려던 많은 지식인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이었다. 관우를 忠義와 尊周의 아이콘으로 재해석해내고 관왕묘 의례를 왕조 의례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것은 숙종이지만, 숙종의 생각은 그 시대 사람들에 의해 조각된 것이었다. 漢 왕조가 거의 무너지고 三國이 각축하던 시절의 역사를 최종 승리자나 강자의 관점에서 서술하지 않고, 형세로는 가장 미

91) 『承政院日記』 2444책, 헌종 11년 11월 癸亥.
92) 『承政院日記』 2935책, 고종 22년 4월 辛巳; 29년 9월 乙未.
93) 『承政院日記』 3025책, 고종 29년 8월 乙亥.

www.kci.go.kr

약했지만 그 품은 뜻으로 천하 사람들을 오랫동안 격동시켰던 촉한의 역사를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들은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 보편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충의'를 정의했고, 역사를 기술했다. 관우의 청룡도와 적토마는 그가 『춘추』를 읽으며 다졌던 '의리'에 토대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어 기억할 만한 武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영조와 정조는 관왕묘를 조선의 무묘로 정립시켰고, 숙종과 마찬가지로 관우를 형세에 굴하지 않고 오롯이 漢 왕조의 회복을 위해 몸바친 이로, 춘추 의리의 상징으로 기념했다. 무묘에서 절하는 무장들과 병사들에게 관우를 본받아 무력이 사적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보전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숙종~정조에 이르는 시기는 군사 방면의 업적이 조선의 어느 시기보다도 두드러진 시기였다. 강화도와 북한, 한양 도성, 수원 화성에 이르기까지 성을 수축하거나 개비하고, 무비를 갖추고 다양한 기회에 진법을 훈련하고, 기초 무예 훈련을 강조하며 보다 강한 '무'를 갖추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은 가장 강한 무는 '인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보편적 가르침을 중시한 나라였고, 왕조는 의리에 바탕한 무의 상징으로 관우를 재정립시키며 그의 사당에서 조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무'를 설득했다. 물론 이 설득과 함께 '인의에 바탕한 정치'가 함께 수행될 때에만 공자가 말한 바 신뢰에 바탕한 가장 강한 국방력이 갖추어질 수 있었다. 외적 이전에 내부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정치로 관왕묘에서의 설득에 설득력을 더하는 일은 다시 왕조의 몫이었다. 19세기 역사 속에서 관왕묘 의례는 지속되었지만, 관왕묘의 18세기적 상징성은 점차 희미해졌다. 관왕묘는 다시 음사로 되어갔고, 끝내는 국가가 스스로 관왕묘를 음사로 만들면서 관왕묘는 더 이상 국가의 안위와 무관한 공간으로 전락했다.

논문투고일(2016. 11. 21), 심사일(2016. 11. 24), 게재확정일(2016. 12. 11)

www.kci.go.kr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星湖僿說』
『弘齋全書』

김수영, 2015「효종의 삼국지연의 독서와 번역」,『국문학연구』32
김수영, 2016,「영조의 소설 애호와 그 의의」,『인문논총』73권 1호
김용국, 1965「관왕묘건치고」,『향토서울』25
김일권, 2014「조선후기 관성교의 경신수행론」,『도교문화연구』40
김지영, 2014 전향사 제례등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국가제례와 일상」,『사학연구』116
김필례, 1998「관우설화연구」,『한성어문학』17, 1998
김 호, 2011「조선후기의 중화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대보단의 역사적 의의를 중심으로」,『현대사회와 정치평론』9
_____, 2013「조선후기 화이론 재고」,『한국사연구』162
민관동, 2014,「삼국지연의의 국내유입과 출판」,『중국문화연구』24
심승구, 2003「조선후기 무묘의 창건과 향사의 정치적 의미–관왕묘를 중심으로」,『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_____, 2012,「관왕묘 의례의 재현과 공연예술화 방안」,『공연문화연구』24
우경섭, 2013『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이성형, 2014「대명의리론의 추이와 조선 관왕묘-선조~숙종년간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연구』53
이은봉, 2007「〈삼국지연의〉의 수용양상연구」, 인천대학교박사학위논문
정옥자, 1998『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한종수, 2015「조선후기 숙종대 관왕묘 치제의 성격」,『역사민속학』21

www.kci.go.kr

Abstract

Two Aspects of the Meaning of the Shrine of Guan Yu in Late Joseon Dynasty

Kim, Jiyoung

The shrine of Guan Yu[關王廟] was built during Imjin War in Joseon Dynasty. However, for nearly hundred years, anyone looking for their own fortune could enter this place. During the period of Sukjeong to Jeongjo, this place could nationally have new meaning. Sukjeong interpreted Guan Yu as an icon of loyalty and appraise to Zhou dynasty[尊周]. The historical sense of 'Shu Han orthodox theory[蜀漢正統論]' -which regards Shu Han as the state having the most legitimacy- permeated through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Sukjeong redefined the loyalty of Guan Yu as universal justice beyond nations, not as the obligation to monarch. Guan Yu was not only a general who was armipotent but also a general who enjoyed reading "Annals of Spring and Autumn" and could give his life for justice. He could be acknowledged as the symbol of military power transcending times.

Yungjo and Jeongjo reformed shrine of Guan Yu as temple of military. They commemorated Guan Yu as the general who devoted himself to the recovery of Han dynasty without submitting to the situation and power- the symbol of loyalty. They tried to manifest that military power should be used to found and preserve righteous country through the temple, the same as Sukjeong. In the period of Sukjeong to Jeongjo the military capability of Joseon was remarkable than any other period in Joseon. The dynasty convinced a desirable 'military power' in the shrine of Guan Yu by redefining him as a symbol of military power based on loyalty. Though the ceremony of Guan Yu lasted in 19th century, the symbolical meaning of 18th century became faint. The shrine of Guan Yu again changed to shaman house, and at last, the dynasty itself made the shrine where

www.kci.go.kr

they pray blindly for the stability of royal family. The shrine of Guan Yu was no more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nation.

Key words : The shrine of Guan Yu, appraise to Zhou dynasty,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the temple of military, a symbol of military power based on loyalty and universal justice

www.kci.go.kr